

111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7)

주제: 글로벌 정치, 경제 정세의 발전 분석

중국문화대학교 111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특강 제 7 회 강연에서는 중국문화대학교 사회과학원 석좌 교수이며, 전 행정원 신문국 국장인 양영명(楊永明) 교수를 초청하여 「글로벌 정치, 경제 정세의 발전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수년간 국제 관계, 아시아 경제 통합을 연구해 온 양 교수는 『대일(臺日)관계사』(松田康博、川島真、清水麗 공저), 『중미 무역 전쟁과 과학 기술 전쟁』, 『아시아 대굴기: 신세기(新世紀) 지정학과 경제 통합』 등의 저서가 있다. 또한 양 교수는 대만에서 최초로 니카소네 야스히로 상을 수상한 학자이다. 이번 강연에서 양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의제(議題), 중미(中美)대항, 중국 공산당 제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네 가지로 분류하여 현재 주목해야 할 글로벌 정치 경제 정세에 대해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격, 합병(兼併), 핵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후 1,1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9월 30일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을 점령하겠다고 하였으나, 세계 각국과 유엔 사무총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푸틴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 영토’를 침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반격 이후 더욱 격렬해졌다. 10월 8일 크림대교(Кримський міст)에서 자살 테러 폭발 사건이 일어났으며, 10월 10일 러시아군은 수백발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등 주요 도시를 공격하였다. 최근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10월 24일 히르키우에서 이쭈姆(Ізюм)까지 8,000km²의 땅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 당분간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 의제: 신상타이(新常態·New Normal), 대리전쟁(代理戰·proxy war)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인 펠로시가 8월 2일 대만을 방문한 후 중국은 8월 4~7일 사흘간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대만 포위 군사 훈련으로, 대만 전역과 주변 해협이 훈련 구역으로 이루어져, 대만의 독립을 제재하고, 미국의 대만 방어 군사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번 군사 훈련의 직접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대만 해협의 군사적 균형을 변화시키고, 대만 의제(議題)에 대한 중미(中美) 대항을 심화시키며, 대만 해협에 대한 각국의 정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미국은 의원, 주지사의 대만 방문, 군함과 군용기의 대만 해협 횡단, 대만-미국의 무

역 협상 가동, 대만 반도체 유치 확대, 미국 의회에서 대만 정책법안(Taiwan Policy Act)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어느 한쪽의 일방적 현상에 대한 변화에 반대하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만과 미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며, 군사협력에 대해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미국은 「외교를 지침으로 삼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만약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만은 군사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중미(中美)대항: 신(新)냉전과 과학 기술 전쟁

10월 12일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서론부터 결론까지 향후 10년간 중국을 가리켜 ‘미국의 지정학적 최대 도전’으로 지목하였다. 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新)냉전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대만의 관점에서,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네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을 전면적으로 경쟁자로 공식 지목하였다. 둘째, 민주와 동맹의 핵심인 국제질서를 지속하고 공고히 한다. 셋째, 과학 기술 전쟁은 중미(中美) 경쟁대항의 핵심 영역이다. 넷째, 하나의 중국 정책(一中政策)에 따른 대만 문제는 국제화의 정책 방향이다.

그 중 세 번째인 중미(中美) 과학 기술 전쟁의 초점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미국에 웨이퍼(Wafer) 제조 공장을 세울 것을 요구하며, 대만 반도체 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데 있다. 이는 대만의 위상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

중국 공산당 제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대만의 정책과 대외(對外) 경제 무역

중국 공산당 제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중국은 대만 정책의 네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1. 축통(促統·통일 촉진) 2. 반독재 3. 외력 간섭 반대 4.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음. 대외경제무역 정책의 4대 영역은 ① 아시아 경제 통합 주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균형 조정 ② 유라시아 대륙 연결 심화, 전략과 에너지 안보 보장 ③ 글로벌 남남 협력(南南合作) 확대 및 글로벌 무역 안정 보장 ④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실천, 국제 공공 재정 지원 확대이다.

양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 가지 침공 시점을 예측하였다. 무력을 선포한 2023년, 대만 총통 선거가 이루어지는 2024년, 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7년 등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시가전(巷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양 교수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젊은 학생들에게는 인생 황금기 10년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강연은 국제 정세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의제(議題)를 남기었다.

(網頁連結: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撰稿: 鍾季儒 日文系・助理教授)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